



젊은 남편 젊은 아빠 ① 우리집 새해설계, 가계부

“아내야, 올해는 돈 많이 벌자”



새해부터 소설가 정인택 씨(32세)의 가정일기를 연재한다. 일곱 살 연하의 아내와 세살박이 딸 상하가 이 글의 주요 등장인물.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정 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 대신 가사일의 대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다. <편집자 주>

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.
“아무리 사는 모습이 다르
다지만 가계부는 여자들이 쓰
는 게 원칙이야.”

“원칙이 어딴? 경우에 맞
게 만들어 정하면 그게 원칙
이지.”

“이봐. 세상에 나와 있는
가계부를 들여다 봐. 남자들
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
계부가 어딴? 그걸 증명이
라도 하듯 가계부는 전부 여
성지의 별책부록으로 나오잖
아.”

나는 조목조목 따져 아내가
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.
하지만 쉽게 끝이들을 아내가
아니다.

“그건 아직까지 여자들이
가사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
그런거야. 생각해봐. 여성지
도 장산데 남자들 용으로 가
계부를 만들어 별책으로 판다
면 그걸 누가 사 보겠어?”

“좋아. 당신 말도 일리는
있으니까 내가 타협안을 내
지. 남자들용 가계부가 나오
면 그 때부터 내가 쓰겠어.

그러니 그때까진 당신이 쓰는
거야. 어때, 불만 없지? 역시
나는 협상에 능하다니까.”

“그게 억지지 협상이야? 가
계부는 가사일을 많이 하고
그래서 지출을 도맡아하는 쪽
에서 쓰는 게 도리라고. 당신
이 쓴다고 하면 내가 당신을
협상의 대가로 인정해 주지.”

“그만 두자, 그만둬.”
“그럼 가계부는 안 쓰는거
야?”

“좀 더 생각해 보고.”
밥 짓고 설거지를 하는 일
과 가계부를 쓰는 일은 완전
히 차원이 다른 일이다. 그건
역할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,
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
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
고 할 수 있지만 가계부는 남
편의 권위와 자존심이 걸린
문제다. 양보하면 가계부에
기록될 모든 잡다한 일들을
나에게 미루지도 모를 일 아
닌가.

나는 자존심이란 단어에 방
점을 찍었다. 아내가 취직을
하고 내가 가사를 전담하게

되면서 그 얼마나 난감했
가! 그래도 작가나 만화가와
같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
람들이 그렇게들 산다고 해
서 못해서지만 감수할 수는
있었다. 하지만 난 아직껏 홀
아비가 아닌 남자가 가계부를
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.
작가는 늘 새로운 시도를 해
하지만 그 일만은 앞장설 수
없다.

앞치마를 두르고 있어도 남편은 남편이다. 가계부를 인
쓰는 한이 있어도 자존심은 지
켜야 한다. 이렇게 걱정하
적금도 들어야 하고 월세에서
전세로 발전해야 할 가계가 지
꾸만 눈 앞에 어른거린다.

“생각해 봤어?”
아이를 재우고 아내가 묻는
다. 순간 절묘한 변명이 떠오
른다.

“이봐, 나는 말이야, 안 그
래도 쓰는 직업을 가진 바
람에 쓰는 일에 진력이 난 사
람이야. 창작하기도 버거우니까
가계부만은 제발 자기가 써.”

“저렇게 머리를 잘 굴리니
폰트를 쓰지. 좋아, 내가 영
보할게. 볼펜은 내가 들테니
까 대신 자기가 옆에서 지출
과 예산을 얘기해 줘야 돼.”

극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.
아내야, 새해에는 돈 많이
벌자 <이나라 기자>

“올해는 가계부를 쓸까?”

“쓸 자신 있어?”

“그걸 왜 나한테 물어? 가계
부는 당연히 당신이 써야지.”

신혼부부라면 당연히 쓴다
는 가계부를 우리 부부는 한
번도 쓰지 않았다. 쓰지 않았
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쓸 마
음조차 먹어보지 않았다. 남
들이 듣는다면 지출 따위는
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풍족한
집안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
만 실상은 그 정반대다. 수입
이 변변치 않은데다 그마저도
일정치 않으니 가계부는 우리
와 별무상관이었고 그것을 쓰
는 행위는 당연히 남들이 하
는 일이었다. 그러한 관행을
깨고 나는 아내에게 가계부를
쓰자고 제안했다. 내 제안에
대한 아내의 답이 결정적이다.
나더러 가계부를 쓰라는 것이
다.